

은혜와 위로가 가득했던 단기선교

지난 7월 20일, LA동부장로교회 선교팀이 니카라과를 방문했습니다. 10일간의 사역을 통해 니카라과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로님과 청년들로 구성된 이번 선교팀은 나눔학교와 협력 중인 Campo de Bendeciones 교회에서 바른 예배의 모습을 가르치며 어린이를 위한 VBS를 열었고, 나눔학교 주변의 어려운 가정들의 심방하고 집 보수 공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 Campo de Bendeciones 교회, 교회 안에 다 앉을 수 없을 만큼 모인 영혼들

첫 사역지인 Campo de Bendeciones 교회에서는 100여명의 아이들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트럭을 타고, 마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교회를 찾아왔고, 첫날은 3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예배 드리며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많은 문제와 상처들이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회복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눔학교에서는 선교팀과 함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바른 모습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영어 캠프를 통해 즐거운 학습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나눔학교 학생과 선생님의 집 바닥과 천장을 보수하는 구제 사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는 선교지 뿐만 아니라 선교사에게도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큰 위로와 회복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나눔들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눔학교 사역과 나눔학교 주변 가정을 위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나눔학교 힐링캠프

나눔학교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는 것은 저희 두 선교사가 늘 소망하던 기도제목이었습니다. 시설 좋고 안전한 수련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캠프를 늘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캠프를 하기 위한 재정과, 진행을 위해 섬길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도만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LA선교팀을 통하여 나눔학교 첫 번째 캠프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캠프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평소에 마을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고, 부모들 역시 불안한 현지 사정에 아이들과 떨어져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캠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외국인에게 아이들을 맡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불안해서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려던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함께 나눈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득이한 일로 인해 불참한 두명 외에 모두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캠프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캠프를 앞두고, 부모들이 선교사를 찾아와 가정의 아픔과 상처들을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찬양시간 가운데 너무나 행복해서 웃으며 눈물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 캠프에서 나눔학교 아이들은 선교팀의 귀한 섬김으로 매우 행복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쉽게 가기 어려운 시설 좋고 안전한 장소에서 마음껏 뛰놀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집회는 설교자의 눈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참석한 모두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이러한 사랑을 처음 받아봄으로써 기쁘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고, 그동안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를 용서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기도에도 너무나 크게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번 캠프를 통해 나눔학교 아이들은 말씀 안에서 한 뼘 더 자라며, 소중한 추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삶의 기쁨이자 은혜임을 다시한번 느끼는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Masaya Compartimos el Amor 교회

지난 7월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Masaya Iglesia Compartimos el Amor (사랑을 나누는 교회)는 현재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예배할 처소가 없어 임시로 정한 장소를 오가며 모이고 있습니다.

Masaya Compartimos el Amor 교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역하는 지역이 여전히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이단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가 전혀 없을 수 없겠으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선교사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동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재 좋은 부지가 나온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지금처럼 빈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고, 온전히 예배와 신앙 양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Masaya Compartimos el Amor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영혼의 바른 양육은 물론이요, 열악한 니카라과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세우는데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와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독재자 오르테가

11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독재자 오르테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대통령 후보이자 아내이며, 무속인 단체 대표인 로사리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새로운 선교사나 선교팀이 입국하는데 니카라과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해야 입국이 허가되며, 허가없이 입국하여 종교활동을 하게 되면 추방 또는 재입국 불허를 하는 법입니다. 또한 기존의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나라의 허가 하에 활동을 해야하며 사역 중 정치적인 발언을 절대 금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의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위도 계획 중이며 계속해서 정부와 현지 목회자들간의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쿠바가 쿠바 교계를 컨트롤하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 법을 진행하는 관리도 옛 혁명 정부 안기부 출신으로 실제로 이에 대한 반대하는 많은 현지 교회가 폐쇄 당하고 목회자들이 박해와 회유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전파되고 세워짐을 믿습니다. 니카라과와 정부, 현지 교회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니카라과의 영적인 위기 이단들의 성장

니카라과가 이단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여호와증인과 물론교, Apocalipsis이며, 한국의 이단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무섭게 성장하는 여호와증인과 이전부터 니카라과 남쪽에 대부분 자리 잡고 있던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기존 교회들을 배격하는 Apocalipsis교회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에는 매주 금, 토요일마다 여호와증인 40여명이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학교 학생의 어머니가 여호와증인 신도와 재혼하게 되면서, 새 아버지의 반대로 그 동안 열심히 참여 하던 학생이 모든 교회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Apocalipsis교회는 기존에 장악하던 남쪽 지역에서 점차 북상하면서 기존의 교회들 옆에 자신들의 교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현지 목회자들이 제대로 신학공부를 한적이 없다 보니 말씀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 목회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확인해본 결과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한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는 현지 목회자들이 참석한 인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본 구원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다 보니 이단의 가르침을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니카라과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은 좋은 이웃이 되기를 M.K 김예린

6월 24일 저녁, 김성현 김다이선교사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예린, 예수님과 같은 좋은 이웃이 되라는 뜻으로 예린이의 친 할아버지, 김상곤목사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예린이를 만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린이가 다른 아기들보다 1kg가 작고 아직 큰소리를 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예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며 더운 선교지에 잘 적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보 부모인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이를 말씀 안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가족들에 기도와 사랑나눔이 니카라과와 어린영혼들을 살립니다.

2016년 9월 7일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김성현. 김다이 드림

니카라과와 중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God's plan for Latin America and Nicaragua.

김성현 선교사 김다이 선교사

e-mail jlovehuny@hanmail.net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DE NICARAGUA"
VALLE SANTO DOMINGO. PORTON UNICA 1C AL SUR 75 VARAS AL NORTE.
MANAGUA, NICARAGUA. P.O BOX NO. 1028



니카라과 연락처 국가번호 505) 8622-7609, 8622-7610

한국 - 국민은행 959102-01-352103 김성현

미국 - Wells Fargo 062000080 729090 8438 Youngmi Kim